



M.E.M.O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교수)

민경찬

2018. 11. 8(목) 16:30

종합관 101호(대강당)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



아주
강화

Ajou Lecture Vol.380



아주대학교 | 다산학부대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16499)

Tel. 031-219-2867/2863 Fax. 031-219-1620

<http://uc.ajou.ac.kr>



아주대학교 | 다산학부대학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교수)

이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동경예술대학대학원 졸업 (음악학 전공)

수상

동아일보신춘문예 음악평론상서
울문화예술평론상
일본방송문화기금상
올해의 교수상
일한문화교류기금상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상

저서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악편』
『송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공저)
『한국작곡가사전』 (공저)
『우리양악100년』 (공저) 등

경력

동경대학 객원 교수 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 및 총장대행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



분단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음악을 향유했던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그리고 서로의 음악을 아는 것을 금지 및 금기 시 해 왔다. 남과 북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서는 안 되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과 북의 음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고, 서로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 변화 또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남북의 음악은, 멀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우선 남쪽에서는 1988년 10월 27일에 단행된 ‘남월북 음악가 작품규제 해제조치’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불었던 민주화의 열기, 북방외교정책 등도 음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2000년에 들어서는 남북 두 정상 간의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그런 한편 북쪽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과 함께 음악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근대노래인 창가·동요·예술가곡·대중가요·신민요 등에 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역시 북한 음악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와 더불어 그 동안 몇 차례 진행된 남북 음악 교류, 음반과 테이프, 동영상, USB, 유튜브, 인터넷, 영화 등을 통하여서도 분단 이후의 남의 음악이 북에, 북의 음악이 남에 전해져 서로의 음악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적지 않은 곡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본 강의는, 어떤 곡이 남과 북이 공유하는 것인지 즉,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북에서 직접 연주한 동영상과 음원 등을 통하여 감상을 하고 또 해설을 통하여 알아보고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잘 모르는 북한음악의 일면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